



대학주보



지난 1일 밤 11시 경 청운관 앞 벤치에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은 채 술과 음식을 섭취하고 있다.

(사진=김가연 기자)

22' 수시 교과 전형 신설

김가연 기자 rkus0617@khu.ac.kr

우리학교 2022학년도 수시 모집 전형이 일부 개편됐다. 기존에 없던 학생부교과전형이 신설됐고 수시 모집 일부 전형에서 최저 학력 기준이 생겼다.

교과목 성적을 중점적으로 보는 학생부교과전형은 교과 성적 80%와 비교과 성적 20%로 학생을 선발한다. 입학처는 교육부가 2019년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에 따라 학생부교과전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신설된 학생부교과전형과 기존의 학생부종합전형에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새롭게 설정됐다. 최저 기준은 인문·자연 계열 모두 상위 2개 영역의 등급 합이 5 이내다. 입학처는 "서류 블라인드 평가와 전형 자료 간소화 등의 변화 속에서 입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저 학력 기준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의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최저 학력 기준은 이번 연도 수시 모집에서만 적용될 예정이다. 입학처는 "학생부종합전형에 수능 최저를 설정하면 고교와 학생의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많아 2023학년도에는 다시 학생부종합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최저 학력 기준을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선 "이미 시행 1년 반 전에 발표돼 시행이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 성적을 중점적으로 보는 전형이라 2023학년도에도 최저 학력 기준이 유지된다.

이외에도 논술우수자전형 인문 계열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상위 2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에서 5 이내로 완화됐고 의학 계열을 제외한 자연 계열 논술 과목에선 과학 과목이 폐지됐다.

교내 야간 음주...골머리 앓는 대학가

박소은 기자 unaos@khu.ac.kr

최근 캠퍼스 내 야간 음주 행위와 관련해 사건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서울캠) 총무팀이 3월 19일부터 조사한 교내 음주 현황에 따르면, 4월 중 이틀을 제외하고 지난 2개월 간 매일 교내에서 음주 행위가 적발됐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수칙을 위반한 사례도 비밀비재했다. 코로나19로 술집·식당 등의 영입이 10시 이후로 중단되고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지속되자 캠퍼스 내 야외 공간에서 모임을 갖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음주 행위는 교내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 행복기숙사 A동 아름원에 거주하는 신다빈(응용영 어동번역 2020) 씨는 5인 이상으로 짐작되는 무리가 노래를 부르거나 게임을 하며 소음을 내는 것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신 씨는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음으로 인해 새벽

3~4시까지 잠들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며 "학생들 스스로 소란 행위의 실태를 파악하고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밤에 캠퍼스 주변을 거닐다 술병이나 배달음식 등의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버려진 것을 보고 불편했던 경험도 있다며 "학생들이 이에 관해 문제 의식을 가지고 개선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근 학내 음주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단속하는 ADT캠스(캠스)의 업무도 가중되고 있다. 캠스 측과 총무팀은 "캠스는 폭력 행위 등의 실질적인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강제성 없는 해산 요청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해산을 요청하면 자진 해산을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인사불성이 된 경우에는 관계자의 권고에도 해산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담당자가 출근하지 않는 주말에는 미화 업무 역시 캠스가 감당하고 있다. 캠스 측은 "가장 많은 음주 행위가 적발된 곳은 청운관 앞

과 본관 앞 계단 그리고 벤치다"며 "이곳에는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깨진 술병과 쓰레기들이 가득하다"고 덧붙였다.

캠퍼스 내 심야 음주는 우리 학교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다. 동대문구 보건소가 지난달 31일 우리학교와 서울시립대학, 한국외국어대학 등 관내 3개 대학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캠퍼스 내 심야 음주에 대해 일차적인 관리 책임이 해당 대학에 있음을 상기시키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온 것을 보면 주변 대학도 동일한 상황임을 추측해볼 수 있다.

서울시립대신문 유은수 기자는 "서울시립대 또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야간 음주가 자주 발생하며 그로 인해 소음, 쓰레기 문제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들어 야간 음주와 관련된 민원이 많아져 서울시립대는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표지판을 설치했다고 한다. 또 하루 5번의 정기 순찰과 수시 순찰을 통해 음주 중이거

나 소란을 피우는 학생에게 경고를 주고 있다.

부산에서도 부산대, 부경대의 캠퍼스 내 심야 음주가 지역 사회 문제로 떠올라 지역 일간지가 이를 비판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부경대의 경우 밤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캠퍼스 출입을 금지한다는 현수막을 내걸었지만 심야 취객들을 저지하는 데에는 무용지물이었다.

총무팀과 캠퍼스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캠퍼스 내 음주 및 소란 행위로 학교와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이에 관해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본관과 청운관 앞에는 외부인 출입을 자제하고 5인 이상 집합과 음주를 금지하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의 노력을 물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시민 의식이 절실한 시점이다.

※ 이번 호가 1학기 종간호입니다.